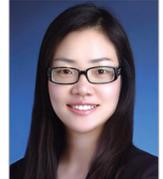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병기 病機



강 무 속
 동물재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전통수의학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와 사기와와의 관계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지는 힘의 우열에 의해 질병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주 : 정기正氣는 장부와 경락, 기혈의 생리기능과 면역력, 회복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正 또는 정기正氣라고 한다. 사기邪氣는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邪 또는 사기邪氣, 병사病邪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정기가 강하면 사기가 침입할 수 없고, 침입하더라도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반대로 정기가 약하여 사기가 침입을 하게 되거나, 생체 내부에서 사기가 자라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고 사기에 의해 정기가 더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질병은 복잡다단한 병리기전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기전을 설명하는 것을 병기病機라고 한다.

병기는 질병의 발생, 발전 및 변화의 기전을 설명하는 말로, 전통수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과 발전 및 변화의 근본 원인은 생체의 외부에 있거나 내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질병을 야기하는 각종 요인-병의 원인들은 동물 체내의 내적 요건이 정상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질병을 야기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정기와 사기가 만나 싸운다고 인식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기와 사기는 질적 양적 변화를 나타내고, 음양의 균형상태도 깨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비록 질병의 발생, 발전의 과정이 복잡하고 변화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기와 정기의 상태, 음양의 균형상실, 기혈의 비정상 상태, 경락과 장부 기능의 문란 등 몇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병리변화의 패턴으로 파악되고 있다.

1. 사정성쇠 邪正盛衰

병에 대한 저항력과 질병을 야기하는 병인이 서로 투쟁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변화를 사정성쇠邪正盛衰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정기와 사기는 대립되는 힘으로, 이 두 가지 힘은 투쟁 과정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정기가 왕성해서 강해지면, 사기는 물러나게 되고, 반대로 사기가 강해지면 정기는 소모되게 된다. 정기가 사기의 이런 변화 속에서 질병의 상태도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만약 생체 내부의 정기가 강하고, 병인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비록 정기가 강하더라도 사기가 더 강하다면 질병의 발생은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정기도 강하고 사기도 강한 경우는 임상에서 여러 가지 병리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거나 기능 항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이러한 패턴을 실증實證, 열증熱證이라고 한다.

만약 생체 내부의 정기가 약하고, 병의 원인에 대한 저항력도 약하다면 쉽게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는 병리반응이 격렬하지 않으며 기능저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의 병리를 허증虛證, 한증寒證이라고 한다.

개 디스토퍼를 예로 들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인 어린 연령에서 발생하기에 개 디스토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후유증도 남게 된다. 면역력이 약한 것은 정기가 약한 것으로, 정기가 약하기에 바이러스-사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임상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수액이나 수혈 등의 처치는 정기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병이 생기기 전에 정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정기-면역력이 약하고, 바이러스-사기가 강하여 발병한 개 디스토퍼는 발열, 콧물, 재채기, 설사, 혈변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전통수의학에서는 이렇게 발현되는 증상을 종합하여 정기와 사기의 상태를 판별하고 치료를 하게 된다. 정기가 사기에 대항할 수 있어서 염증반응에 의한 증상이 주로 나타는 실증(實證) 또는 열증(熱證)에는, 염증을 제거하는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사기를 억제하고 보조적으로 정기를 강화하는 약물을 약간 배합하는 치료법을 선택하고, 정기가 너무 약하여 사기에 저항하는 힘이 부족한 허증(虛證)과 한증(寒證)인 경우는 정기를 강화시키는 약물위주로 처방을 하되 일부 염증반응에 대한 약물을 보조적으로 배합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만약 정기가 심하게 허약하지 않고, 사기도 역시 그다지 강하지 않으면, 정기와 사기는 한쪽의 우세가 아닌 대치상태에 처하기에 질병도 만성 경과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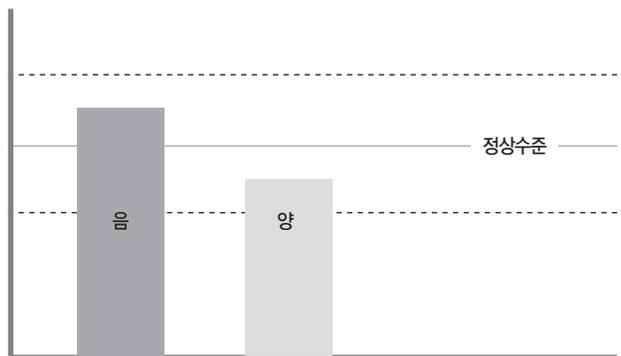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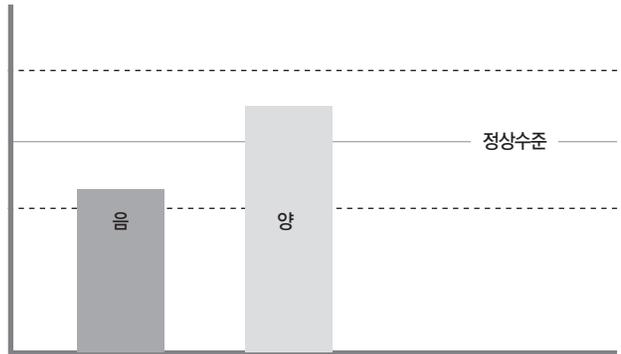
정기가 나날이 강해져서 사기를 이기게 되는 것을 정승사퇴(正勝邪退)라고 표현하는데, 병세는 호전되거나 완쾌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대로 정기가 나날이 약해져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을 사성정허(邪盛正虛)라고 표현하며, 병세는 악화되거나 위중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 정기가 사기를 이기면 사기가 제거되겠지만, 정기도 역시 소모되어 사거정상(邪祛正傷)의 상태가 되어, 중증 질환의 회복기에 볼 수 있는 체력저하가 주로 나타난다.

2. 음양실조(陰陽失調)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음양은 상대되는 한쪽이 너무 강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대립하면서도 돕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변동이 있으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3개의 그래프는 모든 정상상태의 음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음과 양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정상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기에 병리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낮에 활동이 많을 때는 양이 음보다 약간 강할 수 있고, 밤에 잠이 들었을 때는 음이 상대적으로 양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생리적인 변화에 속한다.

그러나 질병 발생과정에서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서로 제약하고 서로 돕는 작용에도 문제가 생겨, 한쪽이 너무 강해지거나 너무 약해지는 편성편쇠(偏盛偏衰)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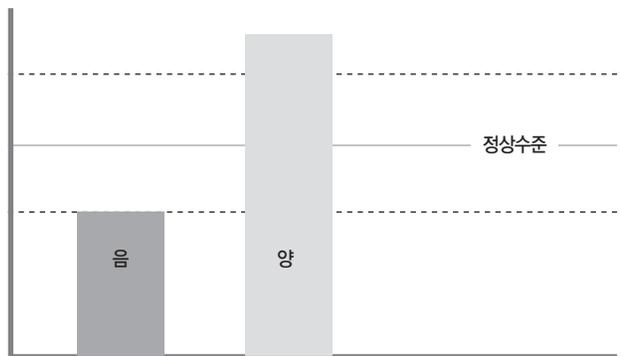


표1. 양이 강한 양성(陽盛)

표1은 양의 우세로 인하여 음이 억제를 받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표2는 음의 우세로 인하여 양이 억제 받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만약 양이 성하면 음이 손상을 입으니, 양성상음(陽盛傷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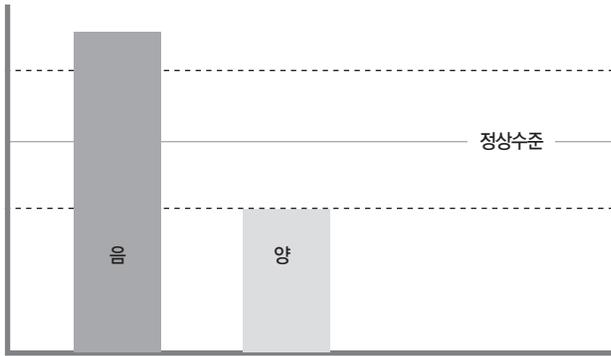


표2. 음이 강한 음성陰盛

이 강하여 음이 손상을 받는다)이라 말하고, 이러한 상태를 양성즉음병陽盛則陰病(양이 강하면 음이 병든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음이 성하면 양이 손상을 받는 것을 음성상양陰盛傷陽(음이 강하여 양이 손상을 받는다)라고 한다. 이러한 상태를 음성즉양병陰盛則陽病(음이 강하면 양이 병든다)라고 표현한다.

음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상태의 양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양이 편성하게 되는데, 이를 허열증虛熱證이라고 한다. 양이 부족하면 음이 상대적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를 허한증虛寒證이라고 한다.

음양의 호근호용互根互用에 따라 음의 손상은 양에 영향을 미치고, 양의 손상은 음에 영향을 미쳐 마지막에는 음양이 모두 손상을 입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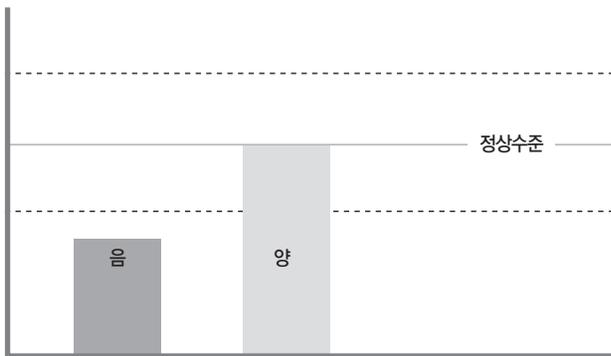


표3. 허열증

질병의 발생과 변화 과정 중에 음양의 균형도 항상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음양의 균형이 깨진 음양실조의 병변에서, 일정한 조건아래서 서로 상반되는 쪽으로 질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음에서 양으로 변하거나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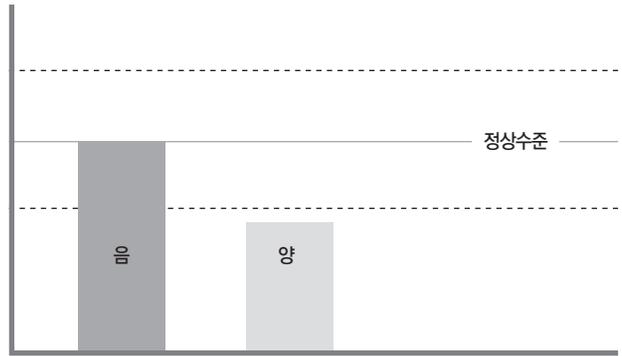


표4. 허한증

우가 있다.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음양은 점점 균형상태를 회복하여 병세는 호전되거나 쾌유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음양이 균형상태를 회복·유지하지 못하고 균형상태의 파괴가 더욱 악화되면 병세도 악화되고, 더욱 심해져 음양이 서로 분리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망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 전통수의학 임상에서 다양한 병리변화가 서로 섞여 있어서 교과서적인 해석이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다. 한 가지 질병에서도 병리패턴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전통수의학에서는 이를 증證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병리패턴을 나눈다. 물론 전통수의학에서도 질병명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치료에 있어서 치료목표가 되는 것은, 한 가지 질병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패턴의 병리변화를 의미하는 어떤 증證이 목표가 된다.

치료목표가 되는 증證을 파악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변증이라는 과정도 역시 많은 단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완벽하게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정기와 사기의 관계, 음양실조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치료원칙과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찾는 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전통수의학적 이론연구와 임상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지만, 결국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설명을 하였다. 전통수의 병리학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